

여성관광객의 유람관광으로부터 추구하는 혜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Benefit Sought from the Pleasure Travel
Experiences of Women Tourist

황 용 철*

(Hwang, Yong-Cheol)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 론

I. 서 론

관광분야의 연구자들은 관광을 통해 추구하는 혜택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변수들과 추구혜택들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Mills, Couturier, Snepenger 1986; Senepenger 1987; Thomson and Pearce 1980). 예를 들어, Gitelson and Kerstetter(1990)는 추구혜택에 따라 관광객들은 분명하게 구분되며, 그들은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입, 성별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Woodside and Jacobs(1985)와 Jamrozny and Uysal(1994)은 국민에 따라 관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ychwang@cheju.ac.kr)

광에서 추구하는 혜택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가족주명주기가 휴가기간 동안에 추구하는 혜택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고했다(Cosenza와 Davis 1981; Lawson 1991). 또, 사전경험과 사회집단과 같은 관광행동 변수들이 추구혜택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cken and Van Raaij 1981; Heyward 1987; Hill, McDonald, Uysal 1990; Pizam, Neumann, Reichel 1978). 그러나, 이것들은 일반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되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성들과 그들의 관광행동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부족했다. 여성관광객들이 현재 관광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연구의 동향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은 관광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관광태도에 있어서도 남성과 다르다(Baraban 1986; Deluca 1986; Hawes 1988). 게다가, *Annals of Tourism Research*가 1995년에 “관광에서의 성”이라는 주제의 특별호에서 여성관광객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직 유람 목적으로 관광하는 여성들로 연구의 초점을 제한하였다.

관광객들이 관광을 통해 추구하는 혜택들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바람직한 시설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Tian, Crompton, Witt 1996). 그러나, 현재는 연구자들이 혜택들을 어떤 경험적·심리적 결과들로서 개념화하고 있다(Samdahl 1991). 이 같은 혜택의 예로는 현실도파(Bello and Etzel 1985; Wahlers and Etzel 1985), 휴식·휴양(Crask 1981; Crompton 1979; Gitelson and Kertetter 1990; Shoemaker 1989; Woodside and Jacobs 1985), 자존(Tian, Crompton, Witt 1996), 또는 지위·위신(McIntosh and Goeldner 1990)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Woodside and Jacobs 1985; Woodside, Moore, Etzel 1980)라든지, 자극(Krippenger 1987; Loker and Perdue 1992), 신기함(Snepenger 1987), 로맨스(Christian-Smith 1990; Leed 1991; Pruitt and LaFont 1995), 또는 교육(Shoemaker 1989; Tian, Crompton, Witt 1996)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적지·기후(Loker and Perdue 1992), 모험활동(Wight 1996), 자연을 관광을 통해 경험하는(Crossley and Lee 1994; Mazanec 1984) 혜택들로 언급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여성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혜택들을 조사한 연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27개의 혜택들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혜택은 요인분석을 통해 9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요인에 기초하여 유사한 응답자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세 가지 유형의 여성관광객, 즉 휴식과 휴양을 추구하는 관광객, 가족/사교를 추구하는 관광객, 그리고 활동을 추구하는 관광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 관광객 유형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단지 고용 상태만이 유의적이었다. 즉, 가족/사교를 목적으로 관광하는 사람들은 기타의 집단들과 비교해서 근로여성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람관광을 하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혜택들을

상세하게 고찰해서, 그들을 특정 군집, 즉 추구혜택에 기초하는 관광객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혜택들이 그들보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혜택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Gitelson and Kerstetter 1990). 이 집단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본 연구는 교육이라는 변수의 잠재적인 공변량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유람관광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혜택은 무엇인가? (2) 유람관광을 하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어떤 혜택의 특징들이 존재하는가? (3) 그 혜택 특징들에 기초해서 어떤 “유형”의 대학교육을 받은 유람관광객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4) 이 같은 “유형”의 대학교육을 받은 유람관광객들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II. 이론적 배경

Smith and Clurman(1997)은 그들의 연구에서 “여성은 시장에서 독립적인 주체가 되었다”(p. 212)고 한다. 그리고 Warner(1993)는 여성은 1990년대에 “점점 더 영향력을 갖는 시장력이다”(p. 22)고 제안했다. 또한 Tunstall(1989)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미국에서 임의의 관광에 대해 대부분의 결정을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관광경험에 대한 평가는 남성의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르다(Richter 1994). Swain(1995)은 “관광경험에 다양성이 존재하고, 인정해야 할 한 특징으로, 행동(예, 추구혜택), 안목, 지식, 취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p. 264). Wood(1994)는 개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성에 대한 표현은 “누가 관광에 관한 결정을 하는가”와 “누가 어떤 관광상품을 구매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Anderson and Littrell, 1995 p. 329).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유람관광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Hawes(1988)는 장년층 여성에 관한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55세에서 59세 사이에 있는 여성들은 해외관광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휴식·휴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아마, Strauss and Howe(1991)의 표현에 의하면, “세대영향”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연령대의 여성은 1960년대 중반에 30대에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관광을 포함한 직업과 가족, 여가에 대한 전통관념들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에 대한 격렬한 도전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광에 대한 기대는 젊은 여성들과 노년층 여성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

다. 본 연구의 목적과 더 밀접하게 부합되는 Strauss and Howe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여행경험에서 많은 다양성이 나타났고, 여성은 다른 문화들과의 개인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만일 정규휴가가 없다면 “몹시 화가 날 것이며,” “휴가는 심리적인 재충전 시간”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Crispell 1991). 사업여행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Howell Moreo, DeMicco 1993; Sawyer 1990; Wolchuck 1991). 그러나, 그런 연구들의 초점은 주로 호텔과 식당, 항공회사가 추구하는 시설들에 맞추어져 있다보니, 여성은 관광경험의 심리적 또는 경험적 결과보다는 시설들에 기초해서 관광 결정을 한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Swain(1995)은 “관광과정(예, 추구혜택들)과 그 과정이 구현하는 사회적 관계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연구들이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도 성 문제들을 다루지 못했다”고 제시했다(p. 250). 더 나아가, Henderson(1994)은 독특한 사회적(예, 관광) 환경에 있는 다른 여성집단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람관광을 하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혜택들에 초점을 두었다.

Ⅲ. 연구방법

유람관광을 하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혜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첫 부분은 다섯 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가 경험한 가장 최근의 유람관광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한 유회여행은 기간이 어느 정도였고, 누구와 함께 했는가 등이었다. 이 설문지의 목적은 유람관광을 한 여성들을 구분하여, 그들에게 설문지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어린 시절의 관광경험들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세 번째 부분은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해 9개의 혜택들(휴식·휴양, 가족과 어울림, 자극, 교육, 육체적, 사교적, 안전, 쇼핑,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27개의 혜택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5(매우 중요함)까지의 범위를 갖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들에게 유람관광을 하기로 한 가장 최근의 결정에서 각각의 혜택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사결정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광일행에서 누가 관광과 관련해서 다양한 결정을 했는가를 표시하도록 했다(관광지, 출발일, 교통편, 동반자, 참가활동).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인구통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7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모든 설문지의 의도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관광경험에서 추구하는 혜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람관광 행동까지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응답자들은 1,000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1922년에서 1993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졸업한 여대생 동창회목록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이 같은 접근법을 채택한 이유는 여성들의 다양한 연령집단들을 고려하기 위해서였다.

본조사에 앞서 대학교육을 받은 1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수행했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예, 설명내용 변경)한 후,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표본에게 첫 발송했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목적을 진술한 설명서·설문지·사전소인이 찍힌 반송용 봉투를 동봉했다. 무응답자들에게는 다시 두 차례의 우편이 발송되었다. 최종응답률은 48.5%(n = 485)였다.

응답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해서 처리되었다. 우선,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여성관광객들이 추구하는 혜택의 특징들이 몇 개나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과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요성분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들을 참조했다. 세 번째로, 여성관광객들이 추구하는 혜택들에 관해 유사하게 응답한 군집들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이 이루어졌다. 군집의 확인은 요인점수가 이용되었다. 확인된 군집을 대상으로 분산 분석과 판별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집과 인구통계적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이 이루어졌다.

IV. 분석 결과

4.1 표본의 구성

표본의 연령은 22세에서 92세까지 분포했다. 대학을 마친 100%의 표본 중, 3분의 2(62%)가 대학원과정을 수료했거나 학위를 취득했다. 표본의 대부분(69.8%)이 평균 국민보다 더 많은 연간 가계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8%)이 현재 직업을 가진 상태였고, 그 중 대부분(46%)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본의 유람관광 행동 관점에서, 가장 최근의 유람관광에서 응답자의 약 98%는 1박2일 관광을 했고, 응답자의 대부분(88%)이 한 사람 이상의 동반자와 함께 관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관광혜택에 대한 빈도분석

27개의 혜택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평균 = 3.58)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적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평균 = 3.41)와 “쇼핑하기 위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본에게 가장 중요도가 낮은 혜택 항목으로는 “상업 지역들에서 벗어나기 위해”(평균 = 1.66)와 “안전감을 느끼는 곳으로 관광하기 위해”(평균 = 1.99),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평균 = 2.0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 참조).

<표 1> 관광혜택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분포, 평균, 표준편차

측정항목	빈도	1(%)	2(%)	3(%)	4(%)	5(%)	평균	표준 편차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455	11.2	8.8	23.3	23.7	33.0	3.58	1.32
교육적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	456	13.2	10.3	23.9	27.4	25.2	3.41	1.32
쇼핑하기 위해	460	16.5	13.3	20.7	20.4	29.1	3.32	1.44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462	20.3	10.2	18.0	24.2	27.3	3.28	1.48
흥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464	14.2	14.0	25.9	23.7	22.2	3.26	1.33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	454	28.4	8.1	12.6	20.3	30.6	3.17	1.62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448	27.0	10.0	13.8	18.3	30.8	3.16	1.61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을 해 보기 위해	434	18.7	15.7	22.4	17.2	26.1	3.16	1.45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하기 위해	454	15.9	17.8	24.2	21.6	20.5	3.13	1.35
가족에 대한 책무들을 이행하기 위해	465	19.6	14.8	22.2	22.4	20.2	3.11	1.41
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452	19.7	13.5	22.1	25.4	19.2	3.11	1.39
안전감과 안정감을 찾기 위해	455	21.3	17.8	25.9	18.2	16.7	2.91	1.37
군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453	25.2	18.1	19.0	17.7	20.1	2.89	1.47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454	24.2	17.6	22.2	18.3	17.6	2.87	1.42
육체적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457	22.8	19.3	24.9	18.2	14.9	2.83	1.36
오락을 위해	459	27.2	20.5	25.1	15.7	11.5	2.64	1.34
스포츠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455	32.7	17.8	26.4	13.6	9.5	2.49	1.32
휴식과 휴양을 위해	443	43.5	9.7	14.2	17.2	14.4	2.47	1.53
쇼핑물들을 방문하기 위해	446	35.9	20.9	22.0	14.1	7.2	2.36	1.29
홀로 외출할 수 있어서	452	37.8	19.7	21.0	13.3	8.2	2.34	1.32
할인점들을 방문하기 위해	447	41.2	19.7	20.4	11.9	6.9	2.24	1.29
타지방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454	44.9	19.2	15.0	10.4	10.6	2.22	1.39
지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449	41.6	20.7	20.0	9.4	8.2	2.22	1.30
기술이 요구되는 활동들에 참가하기 위해	456	42.1	21.9	18.9	10.3	6.8	2.18	1.27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444	50.7	16.2	17.8	8.8	6.5	2.04	1.28
안전감을 느끼는 곳으로 여행하기 위해	453	54.1	15.5	14.1	10.2	6.2	1.99	1.28
상업지역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450	63.6	16.9	12.2	4.4	2.9	1.66	1.04

4.3 관광혜택 차원의 규명

베리맥스 회전과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해서, 27개의 관광혜택 항목들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이 1.0보다 큰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72.6%의 분산도를 갖는 9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이 0.40보다 큰 항목들만 채택되었다. 따라서, 최초 27개의 혜택 진술들 중 25개 항목이 9개 요인에 부하되었다. 부하되지 못한 2개의 항목은 “교육적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와 “오락을 위해”였다.

각 요인에 대해 “휴식/휴양,” “사회적,” “가족,” “쇼핑,” “육체적”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혜택 요인들은 47.8%의 총분산과 1.69에서 4.33에 이르는 고유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차원에 대한 Cronbach 알파값은 0.68에서 0.74까지 분포했다(표 2 참조). 첫 번째 혜택 차원인 휴식/휴양은 세 개의 항목들, 즉 “휴식과 휴양을 하기 위해,”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로 구성되었다. 이 차원은 16.4%의 분산을 가지며, 고유값은 4.26이었다. 사회적 차원도 세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하기 위해,” “타인들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가 포함되었다. 이 차원은 휴식/휴양 차원이 설명하는 분산 중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그리고, 가족 차원도 세 개의 항목들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에는 “가족과 휴가를 함께 보내기 위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족에 대한 책임들을 이행하기 위해”가 포함되었다. 나머지 두 차원인 쇼핑과 육체적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각각 세 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표 2 참조). 그 두 차원들은 설명된 분산 중 13%를 약간 상회하였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추구하는 혜택	요인1 휴식/ 휴양	요인2 문화	요인3 가족	요인4 사회	요인5 쇼핑	요인6 육체적	요인7 고독	요인8 활동	요인9 안전
휴식과 휴양을 위해	.831	.013	.061	.091	.017	.005	-.151	-.033	.120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해	.783	-.086	.082	.179	.025	-.160	.160	.034	.262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751	-.015	.109	-.117	-.009	.014	.352	.075	.024
지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211	.818	-.015	.030	.056	.043	.048	.242	.132
타지방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	-.168	.784	.045	.149	-.106	.018	-.181	.089	.098
상업지역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298	.829	-.091	.018	-.043	.172	.235	-.320	.186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271	.557	-.033	.107	.127	-.103	.381	.067	-.072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	.149	-.041	.879	-.048	.039	-.003	.042	-.096	.094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240	.070	.845	-.076	.115	.182	-.099	-.115	.022
가족에 대한 책무들을 이행하기 위해	-.179	-.053	.791	-.035	.053	.065	.138	.216	.032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하기 위해	.032	-.055	-.086	.874	.099	.175	.179	.014	.055
타인들과 교체하기 위해	.108	.063	.081	.785	.003	.109	-.079	.112	.051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036	.263	-.176	.735	-.022	.070	-.035	.043	.079
쇼핑물들을 방문하기 위해	-.078	-.000	.092	.060	.854	.019	-.043	-.073	.057
할인처들을 방문하기 위해	.151	.112	.109	-.080	.794	.103	.048	.107	-.042
쇼핑하기 위해	-.097	-.219	-.106	.102	.694	-.170	.208	.348	.044

추구하는 혜택	요인1 휴식/ 휴양	요인2 문화	요인3 가족	요인4 사회	요인5 쇼핑	요인6 육체적	요인7 고독	요인8 활동	요인9 안전
스포츠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060	.157	.164	.048	.027	.832	.073	.161	.047
기술이 요구되는 활동들에 참가하기 위해	-.188	-.009	.065	.211	.071	.756	-.049	-.005	.047
육체적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03	-.136	-.025	.209	-.099	.582	.441	.220	.053
군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099	.075	.085	-.052	.062	.064	.788	.074	.054
홀로 외출할 수 있어서	.054	.304	-.065	.225	.394	.237	.495	-.140	.224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을 해 보기 위해	-.002	.034	.026	.057	.139	.201	.148	.832	-.101
흥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276		-.174	.197	.007	.161	-.333	.581	.138
안전감과 안정감을 찾기 위해	.118		.179	.106	.013	.074	.192	.126	.859
안전감을 느끼는 곳으로 여행하기 위해	.218	.271	-.024	.075	.066	.054	-.073	-.162	.798
유효사례수	426	438	432	447	433	444	445	446	134
고유값	4.26	3.06	2.65	2.10	1.91	1.54	1.39	1.17	1.03
Cronbach' α	.75	.74	.74	.73	.68	.85	.73	.80	.58
설명된 분산비율	16.4	11.8	10.2	8.07	7.36	5.92	5.34	4.51	3.95
설명된 누적분산	16.4	28.2	38.2	46.5	53.8	59.7	65.1	69.6	73.5
전체평균	3.76	2.42	3.08	2.76	2.64	2.50	2.62	3.21	2.45

부하되지 못한 네 차원에 대해서는 문화, 고독, 안전, 행동이라 명명했다. 두 번째 부하차원인 문화는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에는 “지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타지방들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상업지역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환경을 경험하기 위해”가 포함되었다. 이 차원은 11.8%을 설명해 주었고, 고유값은 3.06이었다(표 2 참조). 고독 차원에 부하된 두 항목은 “군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와 “홀로 외출할 수 있어서”였다. 이 차원은 5.34%의 분산을 설명해 주었다. 아홉 번째 부하 차원에 현저한 것은 “안전”이었다. 그것은 3.95%의 분산을 설명했고, 1.03의 고유값을 가졌다. 여덟 번째 차원인 활동은 두 항목인 “가능한 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와 “흥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이었다. 그것의 기여도는 안전 차원보다 훨씬 낮았고(설명된 분산 중 4.51%), 1.17이라는 겨우 기준에 적합한 낮은 고유값을 가졌다(표 2 참조).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장 중요한 혜택들(전체 평균점수에 기초)이 휴식/휴양, 활동, 가족이었다는 점이다.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들은 문화, 안전, 육체적이었다. 9개의 차원들에 대한 평균들의 분포는 최저 2.42에서 최고 3.76으로, 그 차원들이 응답자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군집들의 여성들은 사실 관광의 다양한 혜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4.4 군집의 확인

9개의 혜택 차원들에 대한 유사한 응답들에 기초해서, 응답자 집단들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Ward의 계층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사용했다. dendrograms와 agglomeration 계수들을 조사한 결과, 세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사후 비계층(follow-up nonhierachical)(K-평균) 군집분석에 이 군집 수를 적용하였다.

군집분석결과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Scheffe 사후검증을 이용한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세 군집 모두에 존재한다고 입증되었다(표 3 참조). 더욱 구체적으로, 군집 1은 군집 3보다 휴식과 휴양의 혜택(평균 = 3.57)에 중요성을 유의하게 더 두는 경향이 있었다. 군집 1은 또 유람여행의 사회적, 가족, 쇼핑, 육체적, 안전, 활동 혜택에 중요성을 둘 가능성이 군집 2와 3보다 더 낮았다. 반면에, 군집 2는 유람여행의 사회적 혜택(평균 = 3.57)과 가족 혜택(평균 = 3.72)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군집 1과 군집 3보다 유의적으로 더욱 높았다. 이것과 동일한 패턴이 사회적, 고독, 안전, 활동 혜택들에도 적용되었다. 군집 3은 기타의 혜택들보다 활동 혜택(평균 = 3.68)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군집이 추구하는 주요 혜택들에 기초해서, 그 혜택들은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휴식과 휴양을 추구하는 사람(군집 1), 가족/사교를 추구하는 사람(군집 2), 그리고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군집 3)은 F-값에서 휴식/휴양과 사회, 가족 차원들이 세 군집을 가장 뚜렷하게 차별화되었다.

<표 3> 세 여성 집단의 추구혜택차원의 평균

추구하는 혜택차원	군집 1 (n=127)	군집 2 (n=155)	군집 3 (n=146)	F값	유의수준
휴식/휴양	3.57 ^a	3.66 ^b	1.57 ^b	233.80	.000
문화	2.18 ^a	2.89 ^b	2.13 ^b	44.80	.000
사회	1.93 ^a	3.72 ^b	2.41 ^c	235.97	.000
가족	1.93 ^a	3.72 ^b	2.41 ^c	235.97	.000
쇼핑	1.93 ^a	2.91 ^b	2.71 ^b	47.15	.000
육체적	1.91 ^a	2.86 ^b	2.55 ^c	38.00	.000
고독	1.88 ^a	3.09 ^b	2.74 ^c	53.10	.000
안전	2.25 ^a	2.99 ^b	2.00 ^a	45.33	.000
활동	2.87 ^a	3.68 ^b	3.68 ^b	9.16	.000

주: 알파벳 첨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군집 1(a)와 군집 2(a)는 휴식/휴양 특정에 대한 응답에서 서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군집 1(a)와 군집 2(a)는 군집 3(b)와 차이가 있다. 군집 1을 구성하는 여성들은 군집 3을 구성하는 여성들보다 휴식/휴양 차원에 동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군집 2를 구성하는 여성들은 군집 3을 구성하는 여성들보다 휴식/휴양 차원에 동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각각의 혜택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들은 1(전혀 중요하지 않음)에서 5(매우 중요함)까지의 범위를 갖는 5점 리커

트 척도에서 측정되었다.

세 개의 군집 중에서 어떤 혜택들이 가장 잘 판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군집에 대해 판별분석을 실행했다. 카이-스퀘어 분석에 의해 측정된 것과 같이, 두 표준 판별식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함수 1은 총분산 중 68.05%를 설명해 주었고, 고유값은 1.97이었다. 함수 2는 31.95%의 분산을 설명했고, 고유값은 .928이었다. 그 함수들이 좋은 예측요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classification matrices 또한 조사했다. <표 4>는 고도의 분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군집분석 결과

집단	사례수(명)	1		2		3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휴식유향추구자	127	117	92.2	5	3.9	5	3.9
가족/사회추구자	155	3	1.8	152	98.2	0	0
활동추구자	146	0	0	0	0	146	100

주) 사례의 95.93%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세 개의 군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 개의 군집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값이 추출되었다. <표 5>는 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군집들은 고용상태에 관해서만 오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집 2(가족/사회적 추구자)는 근로여성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군집 1과 군집 3보다 더 강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개의 군집 모두 다양한 연령, 교육수준, 수입의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군집 1(휴식과 휴양 추구자)은 26세에서 35세 연령층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했으며, 2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가장 적은 부분(5.1%)을 차지했다. 군집 2(가족/사회적 추구자)는 36세에서 45세까지의 연령층에 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16.5%), 7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가장 적었다. 군집 3(활동 추구자)은 66세에서 75세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이 더 많았다(19.6%). 수입과 관해서는, 군집 1(휴식과 휴양 추구자)이 최고 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군집 2(가족/사회적 추구자)에는 그 보다 낮은 수입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또, 교육상태에 관해서는, 군집 3이 학사학위를 소유한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41.3%).

<표 5> 군집별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

특성		군집 1 (n=127)	군집 2 (n=155)	군집 3 (n=146)
연령	25세 이하	5.1	13.4	8.8
	26-35세	20.6	19.5	19.6
	36-45세	14.0	16.5	14.2
	46-55세	16.9	14.6	14.9
	56-65세	16.9	12.2	13.5
	65-75세	13.2	17.1	19.6
	76세 이상	13.2	6.7	9.5
근로상태	취업	56.6	67.7	54.0
	비취업	43.4	32.3	46.0
년간소득	고(5000만원이상)	45.0	38.8	40.4
	중(2600-4900만원)	30.2	24.4	32.9
	저(2500만원이하)	24.8	36.9	26.7
교육	대학중퇴	36.8	37.9	41.3
	대졸	20.6	21.3	18.7
	석사	38.2	37.9	36.7
	박사	4.4	3.0	3.3

V. 결 론

1. 요약 및 전략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유람관광을 하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혜택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추구혜택들에 기초하여 그들을 특정 유형의 관광객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기존연구들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성이 추구하는 혜택들은 전통적 패턴을 따랐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개별 혜택항목으로는 자연환경, 교육, 쇼핑, 가족, 자극과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었다. 혜택 차원에 대한 항목의 부하방식에 관해서는, 9개의 차원들 중 5개가 기존연구와 같았다(예, 휴식과 휴양, 가족과 어울림, 쇼핑, 육체적 활동). 그러나, 4개의 차원은 예외적이었다.

첫 번째 차원인 문화는 “타지방들에 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와 “지적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와 같은 항목들을 포함했다. 교육이 여행에서 추구하는 혜택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지만(Gitelson and Kerstetter 1990), 본 연구에서는 이 항목들이 여성들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았다. 이 차원에 관한 전체 평균은 2.50이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질 높은 문화적 생활을 이미 경험하기 때문에, 휴가 중 문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여러 연구자들(Crompton 1979; Lounsbury and Hoopes 1985; Woodside and Jacobs 1985)은 이런 현상을 일상생활로부터의 반전, 즉 관광객의 탈출욕구라 했다. Fisher and Price(1991)는 “문화적 상호작용은 흔히 수고로운 노력이기 때문에, 탈출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들이 회피한다”(p. 198)고 지적했다.

고독과 안전 차원들은 이론상 여성에게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항목들인 “혼자서 일들을 할 수 있음”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함”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차원인 고독은 전체평균이 2.62가 되어, 유람관광의 중요한 특성이 아니었음을 나타냈다. 88%의 응답자가 가장 최근의 유람관광에서 한 사람 이상의 동반자와 함께 관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이점에 기인하여,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광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안전이 여성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연구 결과(Howell, Moreo, and DeMicco 1993)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즉,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안전감과 안정감이 유람관광에서 중요한 또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마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본 연구에 응답한 여성들이 안전한 관광지를 이미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대안을 평가한 후에 특정 관광지를 선택한다(Crotts 1999; Woodside and Ronkainen 1980). 이러한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관광지들을 배제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은 유람관광 경험에서 추구하는 주요 혜택이 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사업여행보다는 유람관광을 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사업상 관광을 하는 여성들은 방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그러므로, 안전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혜택일 지도 모른다.

응답자 집단들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것들은 휴식과 휴양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족/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세 가지 뚜렷한 유형의 여성관광객들이 존재했고, 그들 중 대부분이 유람관광 경험에서 독특한 혜택들을 추구를 했다. Crompton(1979)은 사람들은 관광경험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Richter(1994)가 밝혔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도 추구혜택들을 포함한 관광경험에 관한 다양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9개의 혜택 차원들이 요인분석 결과로 나왔지만, 여성관광객 군집들 사이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별된 것은 휴식/휴양, 가족, 사교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 관광시장을 세분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골프장의 마케팅담당자는 동절기에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들을 유치하는 데에 관심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휴식과 휴양의 혜택들이, 일례로 골프장에서 사고 기회를 부각시키는 판촉활동이, 두 “유형”의 여성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로, 세 개의 군집에 속한 여성들 사이의 유의한 차이로는 고용상태가 있었는데, 고용상태가 그 집단들 사이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던 유일한 인구통계적 특징이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 표본이 매우 동질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Hawes(1988) 그리고 Straus와 Howe(1991)의 연구들에 의하면, 그 집단들 사이에 연령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예를 들면, Strauss와 Howe는 각 세대(연령)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획기적인 사건들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제안했다. Leeming과 Tripp(1994)은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관광을 통해 모험을 추구하고 육체적 활동을 관광의 일부분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2.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

연구대상의 되는 집단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여가추구(예, 관광)에 참여하는 여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성의 관점에서 설계되는 측정 도구들을 흔히 사용한다고 Swain(1995)과 Henderson(1994)은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측정 도구들이 편향될 수도 있고, 그 결과, 여가에 대한 여성의 사실감정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지 못한 몇몇 독특한 혜택 차원들이 존재하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같은 차원들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비적 결과이다. 여성에 맞는 측정 도구들의 향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성분석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연구가 진행된다면, 여성과 그들의 유람관광 행동에 관해 더욱 향상된 통찰력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표본은 대상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여성 일반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주거와 양육방식, 사회화 패턴 등에 기초해서 여성들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패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향후의 연구들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에 역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유람관광에서 추구하는 혜택들의 관점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는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들이 남성과 여성, 특히 교육받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다면, 유람관광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은 주부인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관광과 같은 여가추구에서 남성과는 매우 다른 혜

택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Henderson(1990)은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전업주부라면, 그 여성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탈출”하여 평화와 고요를 제공하는 관광지들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고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댁식구들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그 여성은 관광경험으로부터 “모험”이나 “신기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가계구성(예, 부모, 자녀, 조부모)을 설명해야 한다. 가정에 자녀나 부모가 있는지 여부(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유람관광을 하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혜택 유형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유람관광의 일반적 혜택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혜택들은 관광지, 동반자, 여행시기에 따라 개인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람관광에서 추구하는 혜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유람관광을 통해 추구하는 혜택들을 어느 정도 규명했다고 여겨진다. 더 나아가, 이 부분에 관한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제품개발과 판촉전략, 표적마케팅을 계획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L., and M. Littrell(1995), "Souvenir Purchase Behavior of Women Tourists", *Annal of Tourism Research*, 22(2), 328-348.
- Crask, M. R.(1981), "Segmenting the Vacation Market: Identifying the Vacation Preferences, Demographics, and Magazine Readership of Each Group", *Journal of Travel Research*, 20(3), 29-34.
- Crispell, D.(1991, October 28), "Odds and Ends", *Wall Street Journal*, p. 1.
- Gitelson, R. J., and D. L. Kerstetter(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Benefits Sought and Subsequent Vacation Behavior: A Case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3), 228-243.
- Hawes, D.(1988), "Travel-Related Lifestyle Profiles of Older Women",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2), 22-32.
- Henderson, K. A.(1994), "Perspectives on Analyzing Gender, Women,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119-137.
- Jamrozy, U., and M. Uysal(1994), "Travel Motivation Variations of Overseas German Visitors",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6(3/4),135-160.
- Richter, L.(1994), "Exploring the Political Role of Gender in Tourism Research", In *Global Tourism: The Next Decade*, edited by W. Theobald, Oxford, UK: Butterworth, 146-157.
- Samdahl, D.(1991), "Issue in the Measurement of Leisure: A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Connotative Meanings", *Leisure Science*, 13(1), 33-49.
- Smith, J. and A. Clurman(1997), *Rocking the Ages: The Yankelovich Report on Generational Marketing*, New York: HarperCollins.
- Strauss, B. and N. Howe(1991),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 New York: Quill, Inc.
- Tina, S., J. Crompton, and P. Witt(1996), "Integrating Constrains and Benefits to Identify Responsible Target Markets for Museum Attrac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2), 34-45.
- Woodside, A. G. and L. W. Jacobs(1985), "Step Two in Benefit Segmentation: Learning the Benefits Realized by Major Travel Marke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4(1),7-13.